



광남일보





중장공, 지역 식품기업 해외 진출 지원
전남정보산업진흥원과 베트남 협업 프로그램



장성군, 호국보훈 '무궁화 도시' 자리매김
김한중 군수 "충의·애국의 고장"



고품질 고품질 효소핑 채널서 만난다
고흥군, 효양농협 등과 업무협약 체결



"봄배구 위해 모든걸 쏟아 붓겠다"
시페퍼스 조이 웨더런던, 훈련 돌입

조간 제7903호 대표전화 062-370-7000 광고문의 062-370-7070

GwangNam.co.kr

2025년 8월 13일 수요일 (음력 6월 20일)

금호타이어 합평 이전, 지역사회 힘 모은다

시·국회·광산구·합평군 참여 '범사회 협력기구' 출범
1공장 재가동·신공장 건립 지원...지역경제 회복 목표
부지 매각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등 행정지원 약속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의 합평 빛그린국 가신단 이전 작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광주시가 금호타이어의 합평 이전을 추진하기 위해 국회와 시의회, 광산구, 합평군 등이 참여하는 "범사회 협력기구"를 출범시켜 실질적인 후속조치에 나서는 등 조속한 공장 이전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11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금호타이어 경영진과 노조 대표를 만나 '광주공장 재건 및 합평 이전 노사 합의안'의 실질적인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이날 면담은 지난 7월 30일 발표된 금호타이어 노사 합의안에 따른 후속 대응 차원에서 마련됐으며, 금호타이어 정일택 대표이사, 김명선 부사장, 황용필 제1노조 대표, 강경호 제1노조 국성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노사 합의안에는 화재 피해 광주공장 근로자의 고용 안정, 생산량 유지 전제의 광주1공장 부분 재가동, 합평 빛그린국가신단 내 연 530만톤 생산 1단계 공장 신축, 광주공장 부지 매각 때 광주1공장 합평 이전과 2단계 공장 신축 계획 등이 담겼다. 강기정 시장은 지난 6월 노조와 면담, 서울 금호타이어 본사 방문에서 약속했던 '금호타이어 공장이전지원단(가칭)' 구성·운영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전 지원단은 광주시를 중심으로 금호타이어, 국회, 광주시의회, 광산구, 합평군 등 지역사회 주요 주체가 모두 참여하는 '범사회적 협력기구'로, 조만간 참여 기관 의견을 수렴해 공식 출범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또 금호타이어 경영진·노조와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공장이전 지원 내용과 범위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광주1공장 재가동을 위한 부분 재건과 합평 신공장 신축을 위한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를 지원하고, 금호타이어측이 광주공장 부지를 매각하는 대로 개발사업자와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을 신속하게 추진해 공장 이전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금호타이어 경영진과 노조도 광주시의 적극적인 화재 수습 지원과 이전지원단 구성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광주시가 금호타이어의 합평 이전을 추진하기 위해 국회와 시의회, 광산구, 합평군 등이 참여하는 '범사회 협력기구'를 출범시키는 등 실질적인 후속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사진은 정련공장 건물 해체를 앞두고 12일 준비작업에 한창인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정일택 금호타이어 대표이사는 "그동안 광주시의 전폭적인 물밑 지원 아래 경영진과 노조가 원만하게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다"며 "광주공장 부지 매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앞으로도 공장 이전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에 지속적인 도움과 행정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황용필 금호타이어 제1노조 대표도 "고용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광주시의 노력에 감사하다"며 "신속한 공장



이재명-트럼프
25일 첫 정상회담
24일부터 사흘간 방미
안보·경제분야 등 논의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첫 정상회담이 오는 25일로 확정됐다. ▶관련기사 4면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강유정 대변인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취임 82일 만에 미국 정상과의 첫 대면이다. 회담은 25일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다. 이번 방미는 실무 방문 형식으로, 김재경 여사도 동행한다. 강 대변인은 "두 정상은 국제안보 및 경제환경에 대응해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군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 구축과 비핵화를 위한 공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에 타결된 관세협상을 바탕으로 반도체·배터리·조선업 등 제조업 분야를 포함한 경제협력과 첨단기술, 핵심 광물 등 경제안보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정상회담이 25일로 정해진 배경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관세협상을 타결하며 '2주 이내 정상회담'을 언급했지만, 그 당시에도 정확하게 시한을 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웠다"며 "양국 정상의 일정이 빠듯한 상황에서 실무조정을 거쳐 정해진 날짜"라고 설명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

국정위, 오늘 대국민보고회서 123개 국정과제 발표

AI시범도시·국립의대...광주·전남 현안 반영 주목

지역 밀착형 정책도 공개 예정...시·도 축각

이재명 정부가 13일 발표하는 향후 5년 국정운영 청사진에 지역 핵심 현안이 얼마나 반영될지 광주·전남 지역민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관련기사 4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대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 임기 동안 달성해야 할 '123개 국정 과제'와 '564개의 세부 실천과제'를 발표한다. 여기에는 이재명 정부가 추구할 거시적 인 목표와 국가 비전은 물론 균형발전 등 국가 정책의 중장기 방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별 공약은 대선 공약집과 연설문에 토대로 각 광역자치단체의 비전과 정책과제로 정리됐다. 대선 당시 각 기초단체별로 '우리 동네 공약'으로 발표했던 지역

밀착형 정책도 함께 발표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추진할 지역균형발전 전략과 정책도 이날 공개된다. 국정기획위가 이날 발표하는 국정 과제들은 향후 5년간 정부가 이를 나침반 삼아 추진하며 국가 예산으로 뒷받침되는 만큼,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들이 축적을 군두세우고 있다. 앞서 광주시는 △AI 국가시범도시 조성 추진 △민·군 통합 서남권 관문공항 조성 적극 추진 △대한민국 대표 모빌리티

너지 신도시 조성 △석유화학·철강산업 대전환 메가프로젝트 △AI 첨단 농·축산업 융복합지구 조성 △우주발사체 산업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무안국제공항 동북아 대표 관문공항 육성 등이다. 국정위는 이날 국정과제 발표에서 지난 정부의 불법적 비상계엄 사태로 무너진 국가 시스템을 복원하는 것은 물론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민주주의 시스템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활동의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권력 분산을 위한 개헌이 123개 과제 가운데 첫 번째 과제로 선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2면에 계속 이성오·장승기 기자 solee235@

광주 살아? 이 앱 # 들어봤어?

맛집·카페·핫플 광주의 다양한 가게 한눈에

잇샵으로 핫플 추천, 쿠폰으로 혜택받자!

모두의 쿠폰, 잇샵 #



GET IT ON
Google Play

Download on the
App Store

